



Ⅲ. 주요분야별 동향 및 전망

1. 반도체산업



소속: IDC
직위: 이사
성명: 김수걸

2007년 반도체 시장은 금년보다 다소 높은 13%의 성장을 하여 그 규모가 2,829억 불에 이를 것이다. 금년 상반기의 반도체 업체의 재고증가는 하반기 들어 계절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부담이 되고있다. 2007년 시장은 상반기에 조정을 거친 후, 중반에 바닥을 칠 것으로 전망한다. 분야별 전망은 다음과 같다.

PC시장의 두자리 수 판매 대수 성장에 불구하고 저가 PC는 2007년 반도체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Vista효과는 고가PC를 중심으로 우선 나타날 것이며 현재의 Desktop의 30-40%를 차지하는 \$600이하 PC는 2007 하반기부터 그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Mobile Phone 반도체시장은 한자리수 금액 성장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시장 분야별로 성장이 다르게 나타나고, Multimedia가 중심이 되어 시장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금년을 포함하여 내년에도 Value Phone을 중심으로 판매 대수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나 경쟁의 심화로 이 분야에서 반도체 금액성장 기대는 힘들다. 한편 mobile Contents의 급속한 확대로 고가 및 Smart Phone시장에서 Multimedia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Consumer 반도체시장은 2007년에 한자리수 금액 성장에 그칠 것이다. 일부 디지털 가전기기 포화로 반도체 성장이 둔화되거나 점차 Digital TV로 반도체 성장의 주도권이 넘어 갈 것이다. MP3 Player시장은 내년부터 판매 대수면에서 포화 상태에 들어간다. Video기능 등이 강화되면서 MP3P시장은 PMP시장과 상충되고, 통신기능이 강화된 PMP시장 역시 Mobile Phone시장과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Convergence는 그 앞을 가늠하기 힘들다.

메모리시장은 2007년 역시 긍정적이다. PC에 의한 수요 견인과 선발업체의 신축라인대응이 이루어지면 금년에 이어 또 다시 두자리 수 금액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중국, 인도, 동유럽등에서 신규 반도체 고객이 나타날 것이며 경쟁과 기술의 주도권이 이 지역 고객 중심으로 변할 것이다.

12" 라인 증가에 따라 더 기존 IDM은 기존 라인을 이용하 기위해 Foundry사업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신규기술과 설비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향상과 65ns이상을 목표로 할 것이다.

지속적인 M&A로 주요 반도체 업체간의 IP가 통합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이는 반도체 업체의 경쟁구도를 변화시킬 것이다. Marvell이 Xscale 사업부 인수, AMD의 ATT인수, Sandisk의 M-system인수, Micron의 Lexar 인수, nVidia의 Portalplayer 인수 등이 그 예이다.

2. 휴대폰 산업



소속: PNF하우스
직위: 대표
성명: 정재훈

최근 단말기 industry는 다양한 Stress와 Challenge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초 '06년에 시작 또는 본격화 되어온 DMB / UMTS / HSDPA 등 다양한 신기술에 의한 시장 수요의 창출이 수준이 기대되었던 것에 대비하여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를 위한 대단위 규모의 투자 대비 실질적인 판매 부진으로 인해 손익악화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07년에도 다양한 새로운 기술의 진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다만,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중심의 발전이 실질적인 수요의 동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임. 즉,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현재 사용 가능한 다양한 service 만으로도 이미 넘치고도 남을 만큼의 과도한 service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가치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의미가 없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추가적인 기능적 가치를 구매의 동인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 임. 따라서 '06년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공체험을 하고 있는 Motorola의 레이저 폰 과 같이 기능적인 요소를 (사실상 필요 수준보다 넘치는) 보다는 "얇다"라



는 “폼난다” 라는 그리고 새로운 color 라는 감성적 가치에 의해 유발된 다양한 감성적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한 업체들의 시도가 예상된다.

감성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제품의 출시가 전체적인 경향으로 자리 잡게되면 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거나 강조하여 구매 동기 부여를 하기위한 수단으로 지금까지보다는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로서도 수익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말기 업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할 전망이다. 최근의 누적된 단말기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라는 현상은 사실상 적정 수준이상의 volume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단말기 업체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의 구조조정을 조심스럽게 예측 하게 만드는 근거가 될 듯 하다.

신규 또는 대체수요를 부추길 수 있는 Theme 으로는 한국 시장을 중심으로 일반화된 Slim 폰, 새로운 color의 채용, 성장 시장 중심의 초저가 제품 과 안정화 되기 시작 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는 몇몇 기술적 요인, 즉 DMB 등의 Mobile Broadcasting, HSDPA 등이 될 것으로 예측 되나 기술적 요소의 경우 Value chain 사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상충, 사실상의 killer application의 한계 등으로 급격한 수요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보면, '06년 대비 특별히 차이를 보이는 지역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세계적인 지나친 가격 경쟁이 업계전체의 risk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Mobile Broadcasting 부분 (DMB, DVB-H, Media FLO) 의 안정화가 세계적인 agenda로 보여지나 앞서 언급된 것처럼, 이동통신 사업자와

단말기 업체, 방송사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정리되어 저야 하는 사전적인 ISSUE 가 남아있음. 또한, 한국 시장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Slider type의 form factor에 대한 유럽 및 미국 시장의 acceptance level 이 아직은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Nokia 가 slide phone을 3~4종 출시 하는 등 Slider 의 확대를 조심스럽게 예측 할 수 있을 듯 하며, 시장조사 기관들이 내놓고 있는 5~7% 수준 보다는 GSM 진영을 중심으로 좀더 확대된 두자리 숫자의 성장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다.

이동통신 사업들의 '07년 가장 큰 AGENDA 중의 몇 가지를 짚어보면 기술발전(NETWORK을 중심으로)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지출해야 하는 투자 대비 사실상 부진한 판매 실적과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대처 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BEP 수준의 SCALE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속적인 가격하락에 따른 COST 대응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거나 한 경우의 문제부분 그리고 너무도 다양해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NEEDS 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LINE-UP의 확보 필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07년에는 기술적 가치에 의한 GAME 보다는 또, 이미 너무나,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복합화 보다는 디자인, 소재 그리고 Color 등 다양한 감성적 요소에 의한 game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pplication 측면에서 보면 역시 Mobile TV Broadcasting, Music, Instant messaging 이 Software 쪽의 hot application이 될 것으로 보이며 Slim, new color 및 새로운 소재가 기구, hardware 의 주요 application이 될 것이다.

3. 전자부품 산업



소속: 삼성전기
직위: 그룹장
성명: 박종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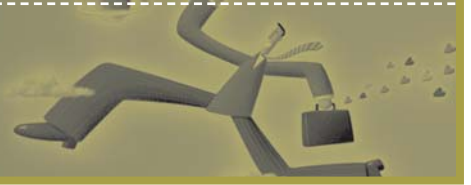
'07년은 Display 와 Mobile 시장의 주도로 산업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성장은 세계 전자부품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PCB, Passive 부품, 카메라모듈, LCD 모듈, N/W모듈 등 IT 및 Display관련 부품의 고른 성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Digital化에 따른 각종 부품들의 One Chip化 그리고 가격하락에 대한 대응으로 고부가 제품 개발과 신규시장의 창출이 주요 Trend로 요약될 수 있다.

'07년의 경우 내수 둔화에 따라, 국내수요보다는 해외수출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며, 원화강세로 인해 제조업체로서는 가격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큰 Issue가 될 것이다.

휴대폰 업계의 Issue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3G 휴대



폰과 Emerging Market을 중심으로 한 초저가 폰의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3G 휴대폰 적용 관련 부품은 Slim化, TV방송에 대응할 수 있는 High End 기술 제품이 중심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초저가 폰 관련 부품들은 큰 가격인하 압박으로 인해 원가절감과 제조경쟁력 향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3G적용, Slim化, 초저가폰에 대한 부품 Level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C 업계의 Issue는 Window Vista의 등장과 Dual Core CPU 중심의 성장으로 요약된다. 또한 UMPC (Ultra Mobile Personal Computer), 즉, 휴대성을 강조한 Note PC의 성장도 주목할 만한 Trend로 예상된다. Window Vista의 영향은 Main board 성능향상 및 DRAM 용량 증가, 광 저장장치의 변화 (DVD Blu-ray or HD DVD)가 예상되며, Dual Core CPU의 성장은 FCBGA 및 MLCC Market 성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UMPC의 성장은 기존 휴대폰의 성장에서와 비슷한 경박단소(輕薄短小) 부품의 Needs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TV 업계에서는 FPD (Flat Panel Display)의 대형화가 지

속될 전망이다. 특히 LCD의 대형화는 관련 부품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지고 있다. 다만, PDP와LCD TV의 가격인하 경쟁에 따라 부품업체들의 뼈를 깎는 원가 절감 활동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아울러 '07년은 LCD TV의BLU (Back Light Unit)에 있어, 기존 CCFL을 대체하려는 후보들 (LED, FFL, EEFL 등)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Full HD TV 성장에 따른 관련 부품의 성장도 기대해 볼만 하다.

게임기 시장에서는 Microsoft의 Xbox360을 시작으로 Sony의 PS3 (Play Station 3), Nintendo의 Wii 등 차세대 게임기의 성장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관련된 부품인 FCBGA, 고용량 MLCC, N/W모듈, 진동Motor 등의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이러한 SET의 동향들은 전체 부품시장에 영향을 주어 '06년 대비 약 12%가량(금액기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율 하락으로 인한 일본 부품과의 경쟁 격화, 대만과 중국의 끊임없는 추격으로 인한 nut cracker 현상에 대비하지 않으면 '07년도 시장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한다.

4. 디지털가전 산업



소속 : KET
직위 : 센터장
성명 : 이 석 빌

디지털 TV를 필두로 한 디지털가전산업은 HDTV의 대폭적인 시장 확대와 데이터방송 본방송 그리고 일부 지상파 사업자들의 MMS 등의 부가서비스를 바탕으로 시장을 형성해오고 있다. 또한 위성과 지상파 DMB와 같은 이동형 방송과 PMP와 같은 휴대형 미디어 플레이어 등의 신규서비스로 인해서 빠른 시장 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한국의 중소기업이 주도를 해온 STB의 경우 환율하락과 함께 저가형 중국산 제품들의 시장확대로 인해 채산성의 악화 및 시장 점유율의 하락을 가져오기도 하

였다. 물론 PVR 등의 고기능 제품등으로 차별화된 시장의 주도해나가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

금년도에는 전 세계적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경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IPTV나 무선인터넷 등을 이용한 다양한 방통 융합서비스들의 출현으로 통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서비스 기기들이 기존의 방송을 기반으로 하는 가전들과 충돌과 이를 조화시켜나가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2007년에는 이러한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디지털가전기기들이 등장할 전망이다. 기존의 TV,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하나의 STB나 DTV에서 처리하는 Triple Play Service기기에 휴대폰 등의 휴대 기기에서 집안의 TV를 같이 즐길 수 있는 Quadruple Play

Service의 등장 등이 예상되며 기존의 IT와 BT간의 결합 같은 이종기술이 결합된 기기들이 등장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나날이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중국의 디지털가

전산업이 저가형전략에서 고기능 고부가가치시장에의 진입을 위한 노력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져 한국의 기업들로서는 또 하나의 위협과 더불어 기회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5. 컴퓨터 산업



소속: 삼보컴퓨터
직위: 책임
성명: 김 주 경

'07년 공공부문 수요증가와 노트북 시장 중심의 지속적인 성장세 예상.

2006년 PC 시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데스크톱 시장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의 고성장에 힘입어 385만대 정도인 14.5% 정도의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데스크톱 PC부분은 가정용 PC와 기업용 PC가 주축한 데 비해 공공용 PC의 지연되어지고 있던 Y2K 교체수요로 지난해 249만대 대비 올해 273만대 정도의 수량을 기록하여 9.8% 정도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트북시장은 지난해 87만6천대 대비 112만대 정도의 수량을 보이며 28.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PC 시장은 Y2K 교체수요로 인한 공공용 PC 부분의 새로운 성장세와 신 유통 채널(TV 홈쇼핑, 할인점, 인터넷 쇼핑 등)의 지속적인 확대로 판매 채널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재확인 시켜 주었으며 지속적인 가격경쟁으로 저가형 노트북 시장을 발판으로 지속된 고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노트북 시장은 가격 인하에 의한 가정용 2nd PC로의 자리매김과 첫 PC 구매고객이 노트북을 구입하는 경향에 힘입어 연간 100만 시장을 이루었다. 저가형 노트북의 대세 속에 작년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하였던 13.3" 이하의 Thin & Light 제품군이 올해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동성과 성능을 동시에 추구하는 노트북 사용자들의 욕구를 여실히 나타낸다.

노트북 시장에서는 듀얼 코어 시장의 한해라고 할 만큼 Intel 과 AMD의 기술경쟁으로 노트북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상반기가 AMD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반면 하반기는 Intel 의 코어2듀오의 출시로 인해 둔화되는 양상이나 AMD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대목이다.

2007년은 컴퓨터의 성능과 편의성에 중심을 두었다는 측면에서 시장 확대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쿼드코어 CPU가 출시되어 속도경쟁의 시장에서 성능위주의 시장이 완속함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OS 인 MS Vista 의 출시로 인하여 사용자 편의성이 한층 강화되어 가정용 시장의 신규 수요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용 PC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컨셉과 성능으로 무장한 제품들의 경연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간절약과 미려한 디자인 그리고 성능을 동시에 추구하는 Small Form Factor PC 및 All-in-One Style PC 의 저변확대와 새로운 출시 등은 소비자들의 Needs에 충분히 부합되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 할 것이다. 노트북 부문에서는 가운데 인텔의 새로운 Santa Rosa Platform은 노트북 성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줄 것이며 AMD 또한 새로운 Turion64 x2 기반의 신 공정 기술을 적용 한 제품 출시로 고급형 시장에서 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2.1" 이하의 Thin & Light 시장과 이동성을 강조한 UMPC 시장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져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다.

특히, 노트북시장의 성장으로 전체 PC 시장의 30%이상을 점유가 예상되며, 데스크톱시장은 기업 및 공공용 시장의 확대로 가정용시장에 근접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